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6일 오전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대통령도 새터민도 함께 한 부처님오신날

현직 대통령 최초 법요식 참석 '세월호 참사' 사과
종교 국적 신분 초월 한미음 합장...국난극복 '다짐'

박근혜 대통령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불자들과 함께 나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관한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사부대중과 함께 되새겼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 원장 등 이웃종교 지도자와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유니온노조 위원장, 흙리스 할

동가, 새터민 가족 등 각계에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긴 가운데 치러진 올해 법요식은 대통령이 물론 불교계와 이웃종교 지도자, 정관계 인사,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계층이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 화합의 장을 펼쳤다.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법요식은 도량결계, 육법공양, 명고, 명종, 관불 및 마정수기, 헌축, 헌향, 헌다, 헌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의 축원과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봉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종정예하의 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

진제 종정예하는 6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법문에 앞서 사부대중과 함께 합장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뜻을 전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설했다. 김형주 기자



다. 진제 종정예하는 법어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나의 한 몸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갔다"면서 "다 같이 극

락왕생 발원의 등과 무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월호 사고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며,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공업"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아픈 통찰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선돼야 하며 종교인으로 그 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축하메시지를 대독했던 예년과 달리 조계사를 직접 찾아 봉축 메시지와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해 행사의미를 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온 만큼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 달

라"고 강조했다. ▶메시지 전문 3면

박 대통령은 법요식 참석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차담을 나눴다. 또 지난 2일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도 했다.

불자대상 시상
이밖에도 이날 불기 2558년 불자대상에 선정된 김동진 불교포럼 상임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텔런트 선우용녀 씨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관련기사 4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부처님오신날 연휴 '휴간' ... 3009호는 5월17일 발행

KOBA 2014

5.20(화)~23(금) COEX

역대최대 규모 27,997sqm
33개국 893개사 참가!

www.kobashow.com

24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방송, UHD를 열다!

* 국제방송 컨퍼런스 및 기술 세미나

* Koba 2014 World Forum

* 음향, 조명기술 전문세미나

* 헤드폰 & 퍼스널 오디오 Festival HAF 2014 동시개최

문의 한국이앤엑스 T. (02)551-0102